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3월 16일
(월요일)

동북일보 4면

공직자의 긍정적 사인여천 실천자세 필요...

김도연 의원
(새정치,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강북구의회, 김도연 의원은 공직자의 긍정적 사인여천 마인드 실천자세가 필요하며 5분 발언에 나섰다.

김 의원은 몇 개월 전, 경로당의 신설문제로 노인복지과 과장과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는 '검토는 해봐야겠으나 신설은 어렵다.' 라는 답변을 받았었고, 그 후 담당과장이 새로 부임되고 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당장 예산을 지출하기는 어렵다. 신설문제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고려하여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시간이 걸려도 찾아보겠다' 고 답변을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처음부터 무조건 안되는 부정적 마인드로 업무에 임하면 어떠한 일도 해결 할 수가 없다" 며, "아무리 무리한 주



▲ 김도연 의원.

민의 요구, 타당성이 없는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민원일지라도 단 1%의 방법과 가능성이 있다면 1% 만이라도 주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고 입장 표명을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무례한 주민도 있어 일선에서 업무하기에 껍떡할 때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공무원에게 헐박 수준의 폭언을

하는 주민도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현명하게 대처하는 공무원들이 있어 주민들이 편안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도연 의원은 "미리 안되는 법과 미리 안되는 행정을 찾아 주민의 불편함조차 말을 못하도록 하는 행정이 아닌 되는 법과 가능한 행정을 찾아 주민의 가려운 곳을 단 1%라도 긁어주는 것이 사인여천에 다가서는 행정이 아닌." 라며, 강북구청장의 슬로건에 맞는 행정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리 예비비로 보육료를 지급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찾아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추구하는 보육정책에 따라 부족한 보육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오겠다는 긍정적 사인여천의 행정을 펼쳐주길 여성가족과 공무원들에게도 당부하였다.

〈박은주 기자 je1718@naver.com〉

서울포스트 5면

김도연 의원...사인여천의 긍정적 마인드로 행정 펼치길



"검토는 해봐야겠으나 신설은 어렵다" "당장 예산을 지출하긴 어렵다 신설문제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고려하여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시간이 걸려도 찾아보겠다."

김도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힌 이 두가지 답변을 두고 '사인여천의 마인드'로 비유했다. 처음부터 무조건 안되는 부정적 마인드로 업

무에 임하면 아무 일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무리한 주민의 요구, 타당성이 없는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민원이라도 단 1%의 방법과 가능성이 있다면 1%만이라도 주민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는 말이다.

김 의원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라는 답변이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행정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구청장이 추구하는 사인여천의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어떤 경우에는 무례한 주민도 있어 일선에서 업무하기에 껍떡할

때도 있고 심지어 폭언을 일삼아 헐박 수준의 주민들도 있을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공무원들이 있어 주민들이 편안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미리 안되는 법과 미리 안되는 행정을 찾아서 주민의 불편함조차 말을 못하도록 하는 행정보다는 되는 법과 가능한 행정을 찾아서 주민의 가려운 곳을 단 1%라도 긁어주는 것이 사인여천에 다가서는 행정이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

“사인여천의 긍정적 마인드갖고 행정 펼치길”

◆강북구의회 5분 자유발언- 김도연 의원

“검토는 해봐야겠으나 신설은 어렵다” “당장 예산을 지출하긴 어렵다 신설문제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고려하여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시간이 걸려도 찾아보겠다.”

김도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힌 이 두가지 답변을 두고 ‘사인여천의 마인드’로 비유했다. 처음부터 무조건 안되는 부정적 마인드로 업무에 임하면 아무 일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무리한 주민의 요구, 타당성이 없는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민원이라도 단 1%의 방법과 가능성이 있다면 1%만이라도 주민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는 말이다.

김 의원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라는 답변이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행정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구청장이 추구하는 사인여천의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어떤 경우에는 무례한 주민도 있어 일선에서 업무하기에 딱딱할 때도 있고 심지어 폭언을 일삼아 협박 수준의 주민들도 있을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공무원들이 있어 주민들이 편안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미리 안되는 법과 미리 안되는 행정을 찾아서 주민의 불편함조차 말을 못하도록 하는 행정보다는 되는 법과 가능한 행정을 찾아서 주민의 가려운 곳을 단 1%라도 긁어주는 것이 사인여천에 다가서는 행정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